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7호 [루게 제 25220호] 주 105 (2016)년 3월 17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성전에 총궐기하여 천하무도한 적들의 도발망동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것이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위대한 선군령장의 천하무도의 기상과 비범특출한 명도밑에 무성게 도약하는 백두산혁명강국의 위용에 기절초풍한 미제와 피외적계당이 국악무도한 특대형도발행위에 매달리면서 정세를 최악의 폭발계선으로 몰아가고있다.

그것은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최대 최대규모의 《키미존트》,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벌리고있는 적들이 무엄하게도 우리의 전략적중추지대에 대한 《대북진공작전》을 골자로 하는 그 무슨 《2부 공작훈련》이라는것을 강행하면서 제 죽을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간파할수 없는것은 적들이 지금까지 벌려온 합동군사연습을 한계단 승화시켜 《유사시 북의 최고수뇌부와 핵, 미사일 등 북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북진공작전》훈련을 벌린다고 낙카리면서 우리의 핵보유능력을 막고 핵통제권을 장악하려면 《합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의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미제와 피외적계당이 일본과 남조선은 물론 미국본토에서 우리의 최고준엄과 《제제봉비》를 겨냥한 각종 특수훈련들을 극비밀리에 비공개로 벌렸지만 이번처럼 로공적으로 세상에 내놓고 공개해대며 지랄발광한것은 일찍이 없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준엄에 도전해나선 침략자, 도발자들의 무도한 망동이 더이상 참을수 없는 극단적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삶과 운명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위협천만만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 적들의 천하무도한 망동은 우리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최고준엄에 대한 전대미문의 가장 악착한 특대형도발이며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지금 우리의 최고준엄을 해치려드는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박멸하려는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철전지원수 미제와 그 주구박근해역적계당의 친벌맞을 극악한 도발망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현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최고준엄에 도전해나선 특대형도발자들은 그가 누구이건 이 하늘아래 살아숨쉬수 없게 모조리 죽탕쳐 철저히 매장해버리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준엄이 위헌당하는 경우 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은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소멸하게 규제되어 있다.

자신들이 선택하고 규제한 국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원수적멸의 전투명령을 기다리고있는 백두산혁명강군과 함께 총약무도한 적들의 책동을 단애에 요정내기 위한 최후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

미제침략자들과 박근해역적계당은 소탕화, 정밀화, 다중화된 핵탄을 단장악하고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린 원수들의 아성부러 재가루로 만들려는 우리 군대의 실명적인 선제타격적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게도 특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시적인 선제타격전에 돌입할것이며 우리 인민은 노숙한 우리 혁명무력의 직전개시에 발을 맞추어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원수들을 씨도 없이 쳐부시기 위한 전인민적인 소탕전에 과감히 떨쳐나서게 될것이다.

미제가 아르카스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감행한 저들의 비밀하고 무수한 특수작전들이 수령과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공화국에서도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살작당은 없을것이다.

우리의 수령결사옹위성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없고 남녘로소모두가 산악같이 펼쳐있어나 《잠수작전》과 같은 무도한 특수작전에 가담한 특대형도발자들을 모조리 릉지저참할 때까지 전인민적, 전국구적 성정으로 전세계적범위에서 강력히 전개되게 될것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뭉친 수령결사옹위의 성세는 그 어떤 핵폭탄으로도, 그 무슨 특수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태양이 없는 세상이 있을수 없듯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가 없는 조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생각할수 없으며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혁명의 수뇌부는 영원하다.

우리 인민은 한순에는 마치고 낮을, 다른 한순에는 멸적의 총검을 비껴보고 총정의 70일전투의 대승리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최고준엄에 도전해나선 총악한 원수들의 천하무도한 망동을 가차없이 짓밟개버릴것이다.

세제는 수령결사옹위전에 총궐기한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서 우리의 최고준엄과 《제제봉비》를 노리고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자, 도발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종말을 고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주체 105(2016)년 3월 16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망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신 소식을 4일부러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레일리》는 김정은명도자에서 신형대구경망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면서 적들의 가슴되는 위협에 대처하여 조선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키며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게 준비할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고 전하였다.

황남의 중앙TV방송과 《나오 마이》를 비롯한 인터넷신문, 통신원, 이란신문 《메데판 타임스》, 《메인 인터넷뉴스》, 《파이낸셜 트리뷴》, 수리아신문 《알 바이스》, 네팔신문 《히말라야 타임스》, 알제리의 신문 《알

나하르 알 제디드》, 인터넷신문 《알 빌라드》, 에리트레아신문 《알 아흐람》,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과 나이지리아 집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포럼, 슬로벤스크의 인터넷포럼 kldr, sk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저문헌물을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민양크유도무기시험사격을 지도하신 소식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피아 노보스페츠크 방공군사당 연태변경위원회의 블레센, 중국의 중앙TV방송, 홍콩 《대공보》와 불황위성TV방송, 수리아의 사나통신, 타이신문 《망코크 포스트》, 만나신문 《머글로브 뉴 파이오 오브 만미》, 필리핀신문 《아닐라 블레벤》,

최후의 승리는 선군조선, 위대한 인민의것이다

지역지장의 기치높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살해공을 짓부셔버리며 노드쳐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모습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아프리카지역 주재사상연구위원의 시가장 앙드레 로베르 모락에게에 미제남편이 있었다.

그리나 그 어떤 위협공갈이나 압력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수 없다.

조선인민은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제도를 끝없이 사랑하며 자애의 힘으로 더욱 번영할 장성국가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오기 위해 무쟁하고있다.

조선인민의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는 장본인은 테마타 침략적인 대공조전경연에 광분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만신창이 되게 얻어맞은 수직스러운 과거를 망각하고 분별없이 달려들던 차에일것은 과멸뿐이다.

우리는 온 세계가 선명에 잔눈길로 놀라움속에 바라보고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소리높이 자랑한다.

총련 도교도본부 위원장 황병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무비의 탄력과 태평, 백전불굴의 혁명정신과 초인간적인 의지가 없는 끝까지 갈수 없는 길이 강국건설의 길이이다.

화승대조차 변변히 없었던것에 당국들의 실수를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 오늘날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에 토대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향하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선군조선, 위대한 인민의것이다.

[조선중앙통신]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평양시안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 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당 제 7차대회를 로력적성과 빛내어가는 당의 전투적소

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서 폭풍처럼 내달리는 격동적인 시기에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찬 소식을 전해져 70일전투에 펼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3직장 2작업반 조사를 막일 주동부는 능력이 어떤 조사공장을 도와주면서 매일 생산계획을 200%이상 성취해 2월말까지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였으며 3직장 4작업반 김정향 등부는 비롯하여 14명의 종업원들도 2월말까지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남측 수행하기 위한 대중적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리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생산속도가 올라가는데 맞게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공장일군들은 현장 하당은 하교

하당은 하교 복공장에서 3일간의 긴장한 전투를 벌려 400개의 형지작업을 끝내도록 하였다.

북쪽식료공장에서 북쪽식료공장은 현대화 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긴장한 조건에서도 상반년도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수행하기 위한 대담하고 총이 끈목표를 세웠다.

공장에서는 생산정상화의 기본공리를 원료확보에서 찾고 70일전투가 시작되던 한주일에 연간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전부 해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지배인 구역총동부를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대중의 정신크를

세멘트생산기지가 일떠선다

순천지구청년관광합기업소에서

순천지구청년관광합기업소에 세멘트생산기지가 일떠서고 있다.

70일전투에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연합기업소에서는 당 제 7차대회으로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을 끝낸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세멘트생산기지건설이 완공되어 생산이 정상화되게 되면



순천지구청년관광합기업소에 세멘트생산기지가 일떠서고 있다. (작은글씨)

국사중의 국사, 최대의 애국사업으로 대할 때 전변을 가져올수 있다

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교훈을 놓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는 산림부기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여 조국의 모든 산을 보물산, 창금산으로 만들 기 위한 대자연계조사업에서 앞대 전진전을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우리는 당의 명도마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단군산림부기전투를 힘차게 벌여 조국은 결심하여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우리는 당의 명도마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단군산림부기전투를 힘차게 벌여 조국은 결심하여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국사중의 국사, 최대의 애국사업으로 대할 때 전변을 가져올수 있다

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교훈을 놓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는 산림부기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여 조국의 모든 산을 보물산, 창금산으로 만들 기 위한 대자연계조사업에서 앞대 전진전을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우리는 당의 명도마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단군산림부기전투를 힘차게 벌여 조국은 결심하여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는 산림부기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여 조국의 모든 산을 보물산, 창금산으로 만들 기 위한 대자연계조사업에서 앞대 전진전을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우리는 당의 명도마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단군산림부기전투를 힘차게 벌여 조국은 결심하여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는 산림부기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여 조국의 모든 산을 보물산, 창금산으로 만들 기 위한 대자연계조사업에서 앞대 전진전을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우리는 당의 명도마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단군산림부기전투를 힘차게 벌여 조국은 결심하여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는 산림부기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여 조국의 모든 산을 보물산, 창금산으로 만들 기 위한 대자연계조사업에서 앞대 전진전을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우리는 당의 명도마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단군산림부기전투를 힘차게 벌여 조국은 결심하여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는 산림부기전투를 본격적으로 벌여 조국의 모든 산을 보물산, 창금산으로 만들 기 위한 대자연계조사업에서 앞대 전진전을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우리는 당의 명도마라 특대사변들로 세계를 진감시키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와 같이 전진해나가는 영웅적인민단군산림부기전투를 힘차게 벌여 조국은 결심하여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어주신 직후 70년을 계기로 뿔뿔히 나무심기전투에 전진한 온 나라 청년군은 《집결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창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라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들고 산림부기전투에서 새로운 전향적 열정을 발휘하여 조국을 조국의 산물에 애국의 뜨거운 땀을 쏟고 있다. 전체 인원이 70일전투에 선약없이 떨쳐나 최상의 성과, 최고의 보람적취를 창조하고 있는 속에 나무심기전투는 날을 따라 땀방울이 맺히고 있다.

씨뿌리기철이 왔다, 모든 힘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모판에서부터 알곡증산의 담보를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

평안북도안의 일꾼들과 농민군중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농민전투에서 대승전고를 올릴 불같은 각오를 안고 씨뿌리기전투에 한사 랑이 앞장서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농방법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다.》

대천군 용흥동농장에서 씨뿌리기와 관련한 도적인 모판주기 사업을 조직한 대천군 용흥동농장리위원회 일꾼들이 모판에서부터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토대를 강화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모든 농촌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모판, 모판대모를 적극 받아들여 모판에서부터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화포기당

정확한 영농면적이 차지하게 하고 있다. 또한 모판양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을 하는 유산현로 종자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은, 논벼모판이 모판대에서 집어 채 이삭이어서 자라도록 지정하지 않도록 온도보장을 책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있다.

씨뿌리기전투장마다 70일전투의 불길, 장조와 혁신의 불비람이 새겨쳐져 있다.

용흥동의 일꾼들은 겨울철에 모판처리하며, 씨뿌리기와 관련한 도적인 모판주기 사업을 조직한 대천군 용흥동농장리위원회 일꾼들이 모판에서부터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토대를 강화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모든 농촌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모판, 모판대모를 적극 받아들여 모판에서부터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화포기당

관람객을 선별하면서 씨뿌리기와 다지기 등 모든 공정을 기술적으로 다뤄 진행함으로써 귀중한 씨앗들이 일꾼들의 손에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산군에서 씨뿌리기를 직접 기계로 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농장들의 일꾼들과 농민군중들은 모판보장대를 따라가며 보조모판막이바까지 설치하여 모판온도를 5°C 이상 높일 수 있게 해놓 고 정량 씨뿌리기를 정확히 보장하고 있다.

대천군에서는 씨뿌리기 열풍전 부리 모판처리 막을 끼워놓는 방법으로 유려한 모판보장을 마련하면서 씨뿌리는기계를 리용하고 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속도 줄이기, 흠뻑기, 막막기, 막막기 등을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상시안의 일꾼들과 농민군

농기계제작이자 다수확모생산 열두삼천리벌에서

지금 영주삼천리벌의 농촌에서 큰모판처리 기계 3종의 농기계생산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다. 왜 이 문제에 씨뿌리기준비행위의 첫머리를 놓았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70일전투에 전진한 때에 일꾼들의 농촌들에서는 알곡증산의 중요한 방도를 당의 뜻대로 따라야 하며, 마땅히 투쟁은, 경험교훈을 힘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그 본보기가 되는 지난해 정보당 100이상의 수확을 낸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이었다.

법인의 많은 단위 일꾼들의 이복이 미곡협동농장의 씨뿌리기경쟁에 집중되었다.

큰모판에서 모판에서 60여 일간 모기기를 하는 조건에서 합적정도를 갖춘 다수확모를 길

러내는가 못 내는가에 따라 정보당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었다. 큰모판은 모판농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때부터였다.

속진, 문체, 평원군의 일꾼들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였다. 결과 다수확모를 길러낼 수 있는 기본비결이 3종의 농기계를 사용하고 모판대모를 보장하는 것이 확보되었다.

대표적사례가 있었다. 천안길방이 28g인 품종은 7일, 8일 되게 길러내는 경우 한알의 종자가 차지하는 면적은 각각 4.6㎡, 5.3㎡, 평당 씨뿌리량은 200g, 170g 되어야 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기일이 높은 농장일지라도 손으로 뿌려서는 종자들이 서로 맞닿아서 모판에 떨어지는 품이 15%이상

농기계제작이자 다수확모생산이다. 당의 요구대로 논을 작, 손질작을 버리고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자.

모두가 분담해나갔다. 속진군이 농기계생산물표를 높이 세우고 김립성총합대학 정양농민대학 큰모판주기반의 기술적담보로써 그 투쟁의 앞장에 섰다.

군인의 모든 농촌들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 높이 들고 모판양도에 180여대의 씨뿌리는기계와 200여대의 종자처리기계를 생산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용흥동농장은 농기계생산물표의 앞장에 선 속에서 문체군인의 많은 농촌들이 따라와서 기, 마땅히 투쟁을 벌여야 하며, 모판에서부터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토대를 강화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자강의 정신으로 승리의 5월을 혁혁한 성과속에 긍지높이 맞이하기 위한 이들의 투쟁이 불려 올 가을은 얼마나 풍요할 것인가. 본보기자 대 명 호

길주군에서 많은 복도재료를 마련

70일전투로 돌고있는 길주군의 씨뿌리기준비에서 주목되는 것이 있다. 자기 지방에 온한 풍화탄을 리용하여 종자처리제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큰 공을 들인 것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농업부분에 앞장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법 잘하여 농민들의 산을 결실적으로 높이는 것인이다.》

군에서는 지난 시기 어느 한 지역에 매진된 부식산한량이 30%이상 되는 풍화탄으로 고농도후인산을 만들 어 종자처리에 리용하였다. 풍화탄을 보드랍게 분쇄하여 80-100°C에서 2시간 정도 담근 후 파쇄를 넣어서 산도를 정확히 조정하면서 만든 고농도후인산의 효과는 컸다.

종자의 싹틔우기를 종전보다 20%이상 높이고 뿌리발육이 좋아지게 하여 모를 튼튼히 길러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군에서는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기여의 공적을 뚜렷하게 대승전고를 올리기 위해 고농도후인산생산물표를 종전에 비해 1.5배로

높이 세웠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 풍화탄처리제 생산을 정확히 주고 빠른 시일안에 다그쳐 끝내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짜고들었다.

군의 책임일꾼들이 농장원들에게 불어주는 보드라운 흙이다. 그렇지만 농장에서 율해농사에 리용할 모판면적이 늘이었는데, 아니라, 오히려 큰모판 대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모판면적을 훨씬 줄여놓았다.

또 복도재료를 2배로 늘렸는가. 그것은 올해에 농장에서 씨뿌리기를 한 다음 그후에 떨어지는 복도재료를 모판용으로 쓰리

씨뿌리기준비로 들이고있는 재령군 대평협동농장에서 지난해보다 2배이상의 복도재료를 확보하였다.

복도재료를 씨뿌리기를 한 다음 그후에 떨어지는 보드라운 흙이다. 그렇지만 농장에서 율해농사에 리용할 모판면적이 늘이었는데, 아니라, 오히려 큰모판 대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모판면적을 훨씬 줄여놓았다.

또 복도재료를 2배로 늘렸는가. 그것은 올해에 농장에서 씨뿌리기를 한 다음 그후에 떨어지는 복도재료를 모판용으로 쓰리

씨뿌리기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일꾼은 재료를 충분히 확보해놓는 게 기초하여 2중막처리기계를 받아들여서 그날계획을 어찌할 수 행해나가고 있다.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에서는 온산의 락테우에 상지모판이 높아 하고 자강력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두고 있다. 또한 배반간에서 벌거숭이 산들을 전부 없애고 산림조성사업을 심화시켜 조국강산을 사회주의 무공도인으로 만듦을 산림부기전투를 국사중의 국사, 최대의 애국사업으로 대할 때의 의도에 맞게 산림부기전투의 선진적 토대로 대할 때의 의도에 맞게 산림부기전투를 공동적으로 벌여나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농기계제작이야 할 기술적문제

농기계제작이야 할 기술적문제에 있는 모의 공간이름 크게 해주는 좋은 생육조건을 지어줄 수 있다.

중진의 공생식량상태를 리용하는 경우 모판의 변두리에 있는 모는 가운데있는 모보다 공간이 작기때문에 낮은 온도도의 영향을 받아 튼튼하지 못하였다.

경험에 의하면 이로부터 15-20%의 모손실을 가져와 한다고 한다. 1점포의 종자소요량이 수킬로이라고 볼 때 한개

농기계제작이야 할 기술적문제에 있는 모의 공간이름 크게 해주는 좋은 생육조건을 지어줄 수 있다.

중진의 공생식량상태를 리용하는 경우 모판의 변두리에 있는 모는 가운데있는 모보다 공간이 작기때문에 낮은 온도도의 영향을 받아 튼튼하지 못하였다.

경험에 의하면 이로부터 15-20%의 모손실을 가져와 한다고 한다. 1점포의 종자소요량이 수킬로이라고 볼 때 한개

농기계제작이야 할 기술적문제에 있는 모의 공간이름 크게 해주는 좋은 생육조건을 지어줄 수 있다.

중진의 공생식량상태를 리용하는 경우 모판의 변두리에 있는 모는 가운데있는 모보다 공간이 작기때문에 낮은 온도도의 영향을 받아 튼튼하지 못하였다.

경험에 의하면 이로부터 15-20%의 모손실을 가져와 한다고 한다. 1점포의 종자소요량이 수킬로이라고 볼 때 한개

민심의 버림을 받은 산송장 박근혜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조국 통일 연 구 원 백 서

천하의 악녀, 민족의 독재양자거리인 박근혜가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는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 국제사회의 비난어뢰에 민심장이 되어 미치광이를 붙여주고있다.

남조선은 《유신》독재의 반부흥, 최악의 인간생존지옥으로 만들고 북남관계를 완전히 절단한것과 모자라 침략의 무리들을 끌어들이며 통곡을 멈출수없게 핵전쟁소용에 발발하고있으며 친미세력, 친일세력을 일삼으면서 민족의 존엄을 추방무찌해 팔아먹고 불구대천의 원수들과 입을 맞추며 돌아가는 억도년대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원성은 하늘에 닿고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온 국민을 다 잡아먹을 마귀변》

박근혜가 피폐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남조선에서는 정의대상에 상상하지 못한 기운이 머문다는 여론이 나왔다. 《독재자의 딸》인박근혜가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상판대기가 단축을 화산을 예고해주는것 같았기때문이었을것이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그러한 우리와 불안이 현실화되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는 역시 《독재자의 딸》이었고 악독하기 그지없는 《맹렬한》이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로씨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역사에 빛나는 장이 아로새겨진 날이다.

1949년 3월 17일 우리 나라와 로씨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협력조약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조로 두 나라사이에서 체결된 첫 협정이었다.

혁사의 그날로부터 장장 60여년간 두 나라의 경제적 및 문화협력조약에 관한 협정이 기초하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교류를 증진하여 발전시키고 원선의 뉴대를 푸러이하여왔다.

여러급에서의 대화와 접촉이 활발해지고 쌍무관계제도와 국제문제들에 대한 견해가 폭넓게 교환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진행렬 무마공산당대회에서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전진하기 위한 통일정책과 2030년까지의 사회경제발전계획을 명시했기때문이다.

이 란 에서 이란 마르카지주의 아라키에 태양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었다.

392개의 태양발전지점이 설치되어있는 발전소의 발전능력

로씨야의 해었던 지난해를 비롯하여 최근간 두 나라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들이 추진되고 다채로운 정치,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두 나라의 친선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로씨야는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적 단결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적발전의 기회

를 가로막아나서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셔하기 위해 분투하고있다.

로씨야인민들이 사회정치생활과 경제,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와 진보를 이룩하고 나라는 존엄과 비위를 수호해나

고있다는 평가할만 한 일이다.

조선과 로씨야는 국경을 접한 이웃이며 조로관계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친선관계이다.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은 조로친선관계가 서로의 지향과 열망,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것임을 증명해

주었다.

조로친선관계를 꾸준히 여기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두 나라에서의 발전과 안정,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유익하다.

두 나라 인민이 함께 걸어나갈 발전의 력사와 과정의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더욱 빛내이고 가꾸어

갈 때만이 이 어떤 환경과 정세 하에서도 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추동해나갈수 있다.

이것이 뜻깊은 3월 17일과 더불어 친선관계발전의 력사를 감회없이 되새겨보는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점이다.

본사기자

심내에서 과거 성노예범리에 대한 강도적인봉기는 계속 반복되고있다.

최근 일본외무성은 《일본군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위안부강제현실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논사를 공개하였다.

문서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성노예의 강제행위와 관련된 이전 증언들이 《위안부, 성노예》라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열거되었다.

그보다 앞서 일본당국은 성노예범리와 관련된 유엔내처장제재위원회가 제기한 질문에 답변무시를 《친권적인 징상조사》

결과 그 어디에서도 《군과 정부기관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행위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개하였다.

일본이 후안무치한 《증거》타명을 늘어놓으며 성노예범리사실을 부인해나서는것은 엄연한 혁사의 진실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행위하여 성노예로 삼았다는것을 입증하는 자료들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에 걸쳐 전신수상 조의 승인일과 군부와 정부가 성노예범리를 직접 조직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성노예로 끌려가 고통을 겪었던 수많은 수난자들이 일제의 죄악을 단죄하여 폭로 단죄하였음이 일제의 만행이 만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나가는 데 유익하다.

이것은 지난해의 경제장성률보다 1.3% 더 높은것이라고 한다.

10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전면부정하고있다. 또한 《과거저지사에 대해 거짓말을 가할 필요가 없다.》 《저지공과 거짓말을 해오며 외국에는 범죄사실을 이제 와서 인정하는는 스스로 화를 청하는 행동으로 들어간다.》고 미를고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이 나라의 실정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일본이 진화가 더 이상 사실을 예외 부정은 본심은 다분히 거짓이다. 괴담은 행적을 혁사의 특약에 붙여버리고 과거범리를 합리화, 정당화하여 민주주의부활과 세력의 발전을 미연화하는데 있다.

혁사는 그 누가 우긴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제방무 력대로 혁사의폭과 부정의 방법으로 과거정실의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 하지만 어리석은것이다.

장래를 부리면 무릅수복 피하는 더욱 엄중해질것이다.

과거범리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의 평화를 총탄하는것만이 일본에 주어진 유일한 선택안이다.

정대로 죄 많은 과거사들 제 마음대로 덮어버릴수 없다.